

광주신세계, 지역과 함께한 27년 “광주 대표 기업 될 것”

이동훈 대표 “지속 가능 개발 ESG 선도기업으로서 가치 계승” 환경정화 활동·친환경 제품 매장 적극 도입 등 사회공헌 강화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 백화점’을 내걸고 최근 증축 계획을 밝힌 (주)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가 법인 설립 27주년을 맞아 사회공헌 강화를 다짐했다.

광주신세계는 25일 광주 법인 설립 27주년을 맞아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ESG 경영을 펼쳐 기업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지역과 성장하는 대표 기업’을 목표로 지속 가능 개발을 펼쳐오면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ESG 경영등급 A(우수)를 받았다.

광주전과 풍암호수공원 등에서 꾸준히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 광주신세계는 친환경 무대를 점포로 옮겼다.

지난 9일에는 본관 지하 1층에 순환자원 수거 기기 ‘네프론’을 설치해 임직원과 고객이 쉽게 환경보호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과 캔 등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이다.

개당 10포인트가 쌓이며, 2000포인트부터 ‘수퍼빈’ 홈페이지를 통해 환전할 수 있다.

광주신세계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제품을 매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는 신발 브랜드 슈룸마보나와 노도니 트가 협업한 친환경 신발을 본관 1층 매장에서 선

보인다. 이들 상품은 페페트병에서 추출한 재생 원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신세계의 장학 사업과 예술 후원은 대표적인 ESG 경영 활동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한 해 1억3000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2800명이 넘는 고교생에게 30억원이 넘는 장학금이 전달됐다.

광주를 대표하는 국제 미술행사 ‘광주비엔날레’는 개최 첫해인 1995년부터 총 19억원이 넘는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광주신세계미술제’는 20여 년 동안 작가 86명을 배출했다.

올해 23회를 맞는 광주신세계미술제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5시 광주신세계 본관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올해 대상에는 정경자 작가가 선정됐으며 신진 작가상 수상자에게는 선민정 작가가 이름을 올렸다.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선정 작가전은 오는 9월 6일까지 진행된다. 대상 수상 작가에게는 상금 1000만원, 신진 작가에게는 500만원이 주어진다. 광주신세계는 수상 작가에게 별도 창작 지원금을 지급해 광주신세계갤러리 초대 개인전도 벌일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임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신세계 전경.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월과 이달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

광주 서구노인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하고 경로 식당에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1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광주신세계는 고객과 접점을 늘리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상생 활동을 벌였다.

지난 5일에는 8년 만에 대대적인 개선 공사를 거

친 지하 1층 ‘프리미엄 푸드마켓’이 고객을 만났다. 이는 올해 광주신세계의 최대 핵심 투자사업으로, 공사비 50억여 원이 들었다.

이곳에서는 새벽에 수확한 지역 과일을 당일 구매할 수 있고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이 선보이는 신선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전관 개선 공사를 벌인 광주신세계는 현재까지 100여 개 브랜드를 새로 들였고, 생활 전문관을 조성해 신규 고객층을 끌어들이었다.

광주신세계는 ‘현지 법인’에 걸맞은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 업체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광주 양동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침구 브랜드 ‘운현궁’과 손잡고 ‘다르다김밥’ ‘양동통닭’ ‘소맥베이커리’ ‘육각커피’ ‘키친205’ 등 다양한 지역 매장을 대거 유치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27주년을 맞은 현지 법인에 걸맞도록 광주신세계 가치를 계승하겠다”며 “차별화된 콘텐츠와 브랜드로 가득 채워 지역민들이 원하는 명소를 가장 빠르게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물가 속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형마트들, 농수산물 할인 판매

이마트 꽃게·롯데마트 안반데기 배추 최대 40% 할인

고물가 속에 대형마트들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먹거리 할인 판매에 나선다.

이마트는 25일부터 31일까지 가을 햇꽃게 100g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및 행사카드 사용 때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와 함께 진행되는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의 일환으로, 신세계포인트 적립 때 20%, 행사카드 사용 때 추가로 20% 할인된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 가격은 2015년에 100g당 800원대 중반에 판매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선박 50척과 협업해 꽃게 직거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식으로 100t, 50만 마리가 넘는 꽃게를 확보했다.

이수정 이마트 꽃게 구매 담당자(바이어)는 “매년 감소하던 꽃게 어획량이 올해는 호재가 많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농식품부와 함께 고랭지 배추 할인행사를 한다.

대관령 인근 해발 1100m 고랭지 채소 단지인 안반데기에서 수확한 배추 120t을 시세 대비 약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백희준 기자 bhj@

여기에 농식품부의 ‘대한민국 농활합시다’ 할인을 적용해 엘포인트 회원이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2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시세보다 40%가량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고랭지배추는 평당 생산 수율이 40% 이상 감소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고랭지 배추 1포기의 소매가격은 6536원으로 1년 전 4516원보다 44.7% 올랐다.

백승훈 롯데마트 채소팀 상품기획자(MD)는 “명절을 앞두고 배춧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비해 고랭지 안반데기 배추를 저렴하게 제공해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이마트, 여름 상품 재고 소진 행사... 최대 50% 할인

처서(23일)가 지나 날씨가 제법 선선해지면서 이마트가 여름 상품 처분에 들어갔다.

이마트는 이달 말까지 침구, 자외선 차단제, 캠핑용품 등 여름 상품 클리어런스(할인) 행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여름 침구는 최대 반값 할인하고, 캠핑·아웃도어 용품은 행사 카드로 살 때 50%까지 할인해준다.

삼성전자·LG전자의 에어컨은 진열상품 한정 특가로 선보인다. 선풍기와 공기순환기(써큘레이터)는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써큘레이터 모든

상품을 구매할 때 휴대용 선풍기 등을 증정한다.

자외선 차단제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여름 의류는 40%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한편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이마트 냉방 가전 매출은 에어컨 18.5%, 써큘레이터 41.8%, 선풍기 42.2% 등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도곡농협, 농협경제지주 로컬푸드 선도조직 선정

산지유통 혁신사례 공유포럼서 도농상생형 로컬푸드 부문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화순 도곡농협이 농협경제지주가 주관한 ‘산지유통 혁신사례 공유포럼’에서 선도조직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도곡농협은 ‘도농상생형 로컬푸드’(직거래 농산물) 부문에서 선도조직에 뽑혔다.

도곡농협은 농산물 가격을 높이기 위한 사업 전략과 추진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문가 심사와 참석자 현장 평가, 사전 심사점수 등이 반영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도곡농협은 지난 2014년 본점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 뒤 로컬푸드 직매장 확장과 운영 내실화에 힘써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롯데슈퍼 봉선점, 롯데슈퍼 풍암점 등에 직매장을 냈으며, 이달 5일에는 광주신세계에 매장을 개설하기도 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출하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수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서훈 전남본부장은 “전남 산지유통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올해 초부터 한국형 농협체인본부 구축을 목표로 산지 조직·시설·인력을 활용해 농가재 구매부터 농산물 가공·도·소매까지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산지유통의 대변화를 이끌 20개 사업모델을 정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현장 혁신사례를 발굴·육성하는 데 힘써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